

군사대국 소련형기술패권 (상)

편역 姜 博 光

기초과학지원센터 所長

이 글은 日本 케이오대학 법학부의 야쿠시지 타이조교수가 1991년 8월2일 발간해 최근 일본의 베스트셀러가 된 「테크노데탕트」(Techno-Detente) 중에서 공산권의 기술발전역사 특히 군사기술중심의 소련형 기술패권 쟁취의 역사를 기록한 부분을 발췌, 번역한 것이다. 야쿠시지 타이조교수는 학부는 이공계인 케이오대학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은 인문계로 돌아갔으나 공과대학으로 유명한 MIT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한 후 기술과 국제정치 관계를 다년간 연구한 학자이다. 「테크노데탕트」는 동일한 저자가 89년 3월25일 발간한 「테크노헤게모니」(Techno-Hegemony)의 자매편으로 후자는 91년 12월25일 번역판으로 (검지사) 출간된 바 있다. <역자註>

1. 독일 로켓트 두뇌 쟁탈전과 미소의 우주경쟁

미국과 소련의 미사일기술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 즉 소련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나치스 독일의 로켓트기술자의 쟁탈전을 벌여서 자국의 미사일 기술개발을 시작한 것이다.

폰·브라운 박사와 125명의 기술자가 「프로젝트·페이퍼클리프」라는 암호명으로 미육군 특수부대에 의해서 동독의 항만도시 피네문데로 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사막에 비밀리에 호송된 것은 제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이었다. 왜 폰·브라운 박사가 소련을 선택하지 않고 미국을 선택했던가

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후일에 그들은 미국의 재정능력이 월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으나 진실은 알기 어렵다.

독일의 로켓트기지는 이 피네문데에 있었다. 런던폭격으로 이름을 날린 V2호 로켓트는 이곳에서 제작된 것이다. 그런데 V2호의 V는 독일어인 “vergeltungswaffe”의 머릿자로 “복수를 위한 무기”란 의미를 갖는 말이다. 바로 이 나치스 로켓트기지의 기술총괄 책임자가 폰·브라운 박사이다. 그들을 송두리째 빼내어 간 것을 보면 미국 정부의 로켓트기술의 확보에 대한 전략적 중요도를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다.

미국이 다수의 나치스 로켓트기술자를 연행해

간것을 보고받고 스탈린은 격노했다. 왜냐하면 베를린은 물론 피네뮐데를 점령한 것은 붉은군대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충격을 받은 소련은 총력을 집중하여 인공위성개발에 돌입하게 되었다.

미국에 연행된 폰·브라운 박사와 그 일행은 캘리포니아로 부터 알라바마주의 헨츠빌에 옮겨 갔다. 거기에서 육군의 야전용 중거리미사일 개발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 미사일은 헨츠빌에 옮겨 갔다. 거기에서 육군의 야전용 중거리미사일 개발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 미사일은 헨츠빌에 있는 육군 병기창의 이름을 따서 「레드스톤」이라 불렀다.

레드스톤은 그후 개량되어 쥬피터로켓트로 발전했다. 미국육군은 이 쥬피터로켓트의 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육군 탄도미사일국을 설립했다. 이 쥬피터를 사용해서 미국은 1958년 1월 31일 최초의 인공위성인 엑스플로러 1호를 쏘아 올리게 된다.

소련형 테크노헤게모니는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 정도의 것이 있었다. 1949년에는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 1957년에는 스포트니크 1호, 그 1개월후 스포트니크 2호(여기에는 라이카란 이름의 강아지가 타고 있었다) 등의 인공위성을 세계에서 최초로 쏘아 올렸다.

1958년에 미국은 드디어 엑스플로러 1호를 쏘아 올렸다. 그러나 그 다음해인 1959년에 미국인의 얼굴이 창백해질 수 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다. 소련이 3개의 루나형 위성을 달을 향해 발사해서 그중 하나가 달의 표면에 착륙했기 때문이다. 원자폭탄, 로켓트, 인공위성 등을 결합하면 미국뿐이 아니라 세계를 정복할 가공할 무기가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되고 달의 표면에 착륙시킬 정확도라던 언제라도 위성턴을 초토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루나 1호가 지구 중력을 탈출하는데 성공했고, 두번째의 루나 2호가 달의 표면에 착륙했다. 그리고 최후의 루나 3호는 그때까지 인류가 결코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달의 뒷면의 사진을 찍어 보내왔다.

초조해진 미국은 같은 해인 1959년 파이어니어

4호를 달을 향하여 쏘아올렸다. 그러나 결과는 보잘것 없는 것이었다. 파이어니어 4호는 궤도를 벗어나 태양계의 어딘가를 돌아다니는 미아가 되고 말았다.

이것을 비롯듯이 소련은 1961년 4월 12일 유리·가가린 우주비행사를 태운 보스토크 1호의 발사에 성공했다. 놀라운 것은 소련의 로켓트기술이다. 누가 보아도 소련기술 쪽이 한 차원 높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당시 미국인의 실망은 걸프전쟁의 승리에 도취해 있는 금일의 미국사정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상원 다수당 원내총무라는 요직에 있었던 린던 B. 존슨은 텍사스의 목장에서 해떨어지기 직전의 황혼의 하늘에 한줄기 빛을 발하며 날아 지나가는 스포트니크를 보고 “나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 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깨달았다”라고 뉴스 캐스터인 워터 크론카이트에게 술회했다.

고작 200년이란 짧은 미국의 역사중에서 이 나라가 기술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선두를 달린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 부터 현재에 이르는 짧은 기간뿐이다. 따라서 미국은 스포트니크로서 처음으로 경쟁국과의 기술경쟁에 진것은 아니었다. 다만 텍사스 목장주의 가문에서 태어나 미국과 텍사스가 세계의 전부였던 존슨에게는 스포트니크의 쇼크가 강렬하게 느껴졌을 따름이다. 그후 그는 NASA의 설립, 아폴로계획의 추진등에 정력을 쏟아넣기 시작했다.

가상적국 소련에게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을 허용하고, 유인 인공위성도 추월당하고, 마침내 달에 착륙하는 것도 뒤져버린 미국은 어떻게하면 좋은 것일까? 그것은 명명백백한 일이다. 달 표면에 인간을 먼저 착륙시키면 되는 것이다.

달에 인간을 보내겠다는 의사결정을 한 이유는 간단하다. 그때까지 소련이 성공을 쌓아온 것을 다 합치고 그리고 그후에도 소련이 간단히 이루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는 목표를 정하여 먼저 달성하면 되는 것이다.

소련은 명백하게 유인 인공위성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러한 일련의 우주계획의 최종목표를 유인 우주정류장 건설에 두고 있었다. 이는 우주정류장으로 부터 직접 미국을 공격할 수 있어 군사적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련에 있어서는 달에 인간을 보내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유인로켓으로 달에 인간을 먼저 착륙시킬 수 있다면 먹칠해진 미국의 위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1961년 5월25일 제35대의 젊은 미국대통령인 케네디는 상·하 양원의 의원들 앞에서 「국가의 긴급과제」라는 제목으로 아폴로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예산을 몰쓰듯 부어넣어 추진하는 초거대프로그램은 이리하여 시작되었다. 노익장의 정치가인 소련의 후루시초프는 “이 젊은 녀석이 무슨 불장난을 저지르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미국 정부가 정식으로 인공위성개발에 착수한 것은 아폴로계획에 몇년 앞서 시작되었다. 1955년 아이젠하우어정권이 國際地球年 참가의 일환으로 「벵가드 계획」을 결정한 것이 시발이다. 이 계획은 미국해군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육해공 3군의 경쟁의식이 강한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다. 미 해군의 벵가드계획에 대항하여 육군은 레드스톤을 개발 완료하고 쥘피터로켓트를 만들고 있었다. 따라서 펜타곤에서는 육군의 계획이 주류이고 해군의 비군사적 계획은 호평을 받지 못했다.

국제지구년은 1957년에 시작해서 58년에 끝날 예정이었다. 미국으로서는 이 기간내에 벵가드위성을 쏘아올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제지구년의 초년도인 57년 10월4일에 소련이 스푸트니크를 쏘아올린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린던 B. 존슨은 커다란 쇼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공화당출신 대통령인 아이젠하우어는 오히려 냉담했다. 그는 “러시아인은 하늘에 작은 공을 쏘아 올렸을 뿐이다”라고 깎아내렸다. 미국 과학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의 총장인 D. 블롱크와 미국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이사장인 A. 워터맨등이 스푸트니크의 군사적 위협은 무시할 정도라고 진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협적인 것은 사실이었다. 소련 로켓트가 갖는 거대한 추진력은 미국에 대해서 대단한 위협이었다. 그것에 핵탄두를 붙이면 그야말로 미국은 위험한 상태에 빠지기 마련이었다. 이로부터 군부와 아이젠하우어와의 알력이 생기게 된다. 즉 화이트하우스와 펜타곤과의 갈등이 시작된다.

우선 아이젠하우어(아이크)는 MIT공대의 총장 제임스 킬리언을 대통령 과학보좌관으로 선택하고 장관급의 고관직에 보냈다. 또한 대통령과학자문위원회(Presidential Science advisory Committee : PASC)를 신설하였다.

PASC의 역할은 단순히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을 입안하는데 그치지 않고 무기개발계획의 입안 및 심의 그리고 과학기술적 관점에서의 군사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에 민간인을 임명하는데 아이크의 남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었다. 그 위원회의 17명의 멤버중에 제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비밀무기를 개발한 MIT 레이더연구소나 로스알라모스원자력연구소 등의 과학자가 포함되었다.

점차로 킬리언박사와 PASC는 아이크의 보수적인 우주프로그램의 사상을 강하게 반영하게 되었다. 아이크는 군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우주프로그램을 통합하는 것은 군사목적과 과학기술목적을 혼동하기 때문에 옳지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과학기술정책의 중앙집권화를 군주도로 수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위대한 육군 원수 아이크의 사상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민간출신의 케네디대통령에 의해서 발전되고 만다. 1961년 1월 17일 아이크는 유명한 대통령 퇴임연설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에는 군사산업 복합체라는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정치가들은 미국의 정책이 한층의 과학기술엘리트들에 의해서 움직여질지도 모를 위험을 양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칫 잘못하면 미국은 페어퍼

클럽을(폰·브라운박사 호송작전 암호명이나 그 말뜻은 종이집계를 의미함) 잘못 끼웠는지도 모른다.” 아이크는 그의 연설중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2. 독일은 우방, 폴란드는 적국(프러시아 커넥션)

1382년의 전쟁으로 모스크바 대공 도미트리가 크레믈린을 공격해온 몽고군을 소수의 병사만으로 격퇴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무기 때문이었다.

서유럽에서는 당시 겨우 대포나 간단한 火器가 전쟁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들 무기는 상대를 살상할 정도의 고도 무기는 아니었고 다만 병사나 말(馬)을 위협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당시의 전술은 기마병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도의 기마전술을 구사하는 몽고군에 대해서 유럽군대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이와같이 말을 깜작 놀라게 한 것이 러시아의 대포나 머스키트총이었다. 말이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몽고군은 그다지 위협적인 존재는 될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러시아가 몽고에는 신무기로 대항할 수 있었지만 같은 신무기로 대항해 오는 폴란드나 리트아니아에는 어찌할 수 없었다. 이 경우는 무기의 고도화와 전력을 증강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오랜 세월동안 폴란드로 부터 고통을 받은 러시아는 옷깃만 스쳐도 몸서리가 친다고 하듯이 가톨릭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었다(폴란드의 국교가 가톨릭이기 때문임). 로마노프왕조의 초대황제 미하일의 아버지인 피라레트 로마노프가 그리스정교의 총주교였기 때문이기도 한다. 피라레트는 러시아와 폴란드의 휴전협정 교섭을 위하여 폴란드에 체제중 학대를 받은 일이 있었다. 결국은 전쟁 범죄인으로 취급되어 장기간 투옥되었고 러시아에 돌아온 것은 평화가 성립된 1618년이었다.

그때 멧힌 한은 골수에 사무쳐 러시아는 루터파나 칼빈파등의 프로테스탄트를 우대하고 가톨릭을 박해했다. 그때문에 많은 독일직업인이나 네덜란드의 상인이 러시아에 이주해 왔다(독일과 네덜란드는 프로테스탄트임). 이 점은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가 가톨릭은 폴란드를 배척하고 프로테스탄트인 네덜란드를 우대한 것과 매우 흡사한 것이었다.

러시아의 외국기술도입은 바로 이 독일촌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폴란드나 리트아니아에 이기기 위하여는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무기의 고도화를 달성하는 길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미 1632년에는 네덜란드인 기사 안드류 비니우스에 의해서 러시아 최초의 제철소가 모스크바의 남방 2백킬로미터 지점인 토라에 건설되었다.

토라제철소는 후일에 크게 확장되었다. 1618년부터 14년간 계속된 폴란드와의 휴전이 파기되어 다시 전쟁이 발발되었으나 러시아는 금방 패하여 굴욕적인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협정에서 러시아는 2만루블 상당의 배상금을 지불함은 물론 모스크바의 바로 코앞에 위치한 스모렌스크를 폴란드로 부터 반환해 받으려는 노력은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 전쟁의 결과를 깊이 반성하여 러시아는 토라제철소를 확장한 것이다. 그뿐만아니라 외국으로부터 무기기술을 많이 도입하여 군의 근대화를 추진해 나갔다.

당시 유럽에서는 대포나 총을 점성(粘性) : 끈적하게 달라붙는 성질이 높은 청동으로 만드는 것이 보통이었다. 점성이 낮으면 대포를 쏠때 포신이 갈라져서 쓸수 없어지기 때문이다. 청동기술은 교회의 종을 생산하고 있던 가톨릭국가가 보유하고 있기 마련이다. 그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근대의 병기기술은 신성로마제국이나 프랑스가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프로테스탄트의 신종국인 영국이 값싼 소재인 철을 사용해서 대포를 만드는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영국이 이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해도 실은 영국에 이주한 유주노교도 즉 종교전쟁때문에 불란서를 떠난 신교도인 유주노들

이 개발한 것이다.

이로하여 영국은 16세기말로 부터 17세기에 걸쳐서 급속히 대국으로서 대두하게 된다. 이에 대항하여 일어난 나라가 같은 신교도국가인 네덜란드이다. 네덜란드에도 유구노교도가 많이 살고있었기때문에 영국의 철로 만드는 대포제조기술은 즉시 모방이 가능했다. 이 무기제조기술이 네덜란드인 또는 독일인에 의해서 러시아에 이전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볼때에 러시아의 무기기술과 영국과 네덜란드의 무기기술은 실은 동일한 뿌리를 가졌다고 하는 매우 흥미있는 사실을 알게 된다.

유구노는 전형적인 하이테크이민이었지만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이민도 실은 같은 하이테크이민이었다. 전쟁전에 폴란드에는 약 350만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 현재의 이스라엘의 인구가 약 450만인데 비하면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폴란드에 살고 있었던 가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유대인이 폴란드에 살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그들도 유구노교도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박해를 받아서 신흥대국 폴란드나 리트아니아에 기술이민이나 상업이민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폴란드나 리트아니아에 있는 유대인의 역할은 영국, 네덜란드 및 독일에 있었던 유구노의 역할과 아주 흡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시에 그것은 러시아에서의 네덜란드인이나 프리시아인의 역할과도 같은 것이었다.

왕정복고후의 영국에서는 국왕 찰즈2세가 유구노를 영입하기 위하여 이민법을 제정하고 30년 전쟁후의 독일에서도 프리드리히 빌헬름왕이 포츠담령을 공포하여 유구노의 베를린 및 프리시아에의 이주의 편의를 도모했다. 마찬가지로 폴란드에서도 카시미르 3세(쿠라쿠후대학의 창립자)가 유대인이민의 우대책을 포고했다. 그러나 이것은 3세기나 이른 14세기후반의 일이다.

유구노가 영국이나 독일에서 우대받기 시작한 것은 17세기중반 이후이었기 때문에 폴랜드의 유대인우대정책은 그보다 3세기나 앞선 것이었다. 즉 같은 신흥국이라 하더라도 폴란드는 영국이나

네덜란드보다 2세기내지 3세기정도 빠른 국가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폴란드의 유대인우대정책은 12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의 폴란드는 여러개의 公國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그들 공국들은 서로 경쟁하여 경제부흥정책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도 환영받았다. 예를들면 현재의 독일국경지대가 된 포메라니아 저지대라던가 남쪽의 시래지아지방에 독일인의 이주가 촉진되어 그들은 도시의 건설이나 수공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었다.

1500년경의 폴란드의 인구는 500만정도였으나 그중 유대인의 인구는 3만정도였다. 그러나 그후 100년후에는 유대인의 인구는 15만정도로 늘어났다. 그들은 무역, 기술, 공예등 모든 부문에서 폴란드왕국의 중추적위치를 차지하여 갔다.

이러한 폴란드가 러시아를 괴롭히고 있었다. 따라서 러시아는 유대인의 기술을 의지할 수는 없었다. 러시아 최초의 왕국 바잘이 유대교를 국교로 하였던 일을 생각하면 역사의 무상함을 느끼게 된다.

유대인에 대항하고 있었던 것은 독일인이었다. 그리하여 러시아는 독일인에 기술을 의지하게 되었다.

신교도는 가톨릭과는 달리 금전적활동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루터파의 독일인이 이와 마찬가지로 금전적활동을 인정하는 유대교도에 대항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신교도인 유구노가 경제와 산업을 좌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과의 불화는 없었다. 그후 유구노는 체제파인 가톨릭에 배척을 당해 나라밖으로 추방되어 네덜란드 등에서 유대인과 공존했다. 문제는 네덜란드에서 우대되었던 유대인이 독일에 침투해 온 것이다. 당연히 독일 상인들과 마찰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원래부터 독일에는 통일국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독일인은 다른나라에서 직업을 구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독일은 1648년의 웨스트파렌조약이후 분열이 오히려 굳어져 가

서(공국이 미니 주권국으로 승격했기 때문) 통일 시장의 형성은 절망적이었다. 각 공국은 따로 따로 관세를 받아 상품의 유통을 저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불리한 시장조건에서는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여 독일의 직업인이나 상인들은 외국으로 옮겨갔다. 이러한 기회를 역이용하여 네덜란드로부터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여 독일인의 이민을 가속화시켰다.

이것은 로마노프 러시아에 대해서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독일인을 받아들여 군사기술을 근대화하면 폴란드나 리트아니아에 대항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즉 러시아의 이완 대왕의 꿈이었던 러시아의 패권실현에 있어 독일과의 제휴가 절대로 필요했던 것이다. 로마노프 왕조의 제2대 황제 알렉세이가 모스크바교외에 「독일 촌」을 건설한 것으로 바로 이때였다.

프러시안 커백션은 이리하여 17세기 후반으로부터 착실히 진행해 갔다. 러시아의 프리드리히 대왕이 “놈들 야만인들과의 우의를 깊이하라”고 하명한 배경에 러시아와 폴란드간의 불화, 폴란드의 유대인과 외지 독일인과의 불화가 얽혀있었던 것을 모르고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을 것이다.

3. 독일기술과 소련의 군사기술 대국화

제1차대전이 끝나자마자 소련과 폴란드의 새로운 대결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독일제국이 패망함에 따라 독일군이 철수한 후의 구 독일령 프러시아를 점령할 목적으로 동쪽으로부터는 소련의 볼셰비키군이 그리고 서쪽으로부터는 폴란드군이 진격해 들어갔다. 당연히 소련과 폴란드가 교전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해묵은 불화의 불씨가 되살아난 러시아인과 폴란드인의 전쟁이었다.

소련은 이 기회에 독일을 대신해서 폴란드를 지배하에 두고 서구에 인접하므로써 유럽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구축하려 했다. 일방 폴란드는 오랜동안의 식민지생활을 이제 막 벗어나 나라를 되찾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그 존재가 명확히 인식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무력으로 국경선을 확정하여 국제적으로 국경선을 확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리하여 1919년 소련-폴란드전이 발발했다.

이 전쟁은 소련과 폴란드간의 해묵은 원한으로 인해 매우 격렬한 전쟁양상을 보였다. 초기에 소련군인 赤軍이 어물어물하고 있는 사이에 리트아니아의 대부분을 점령해 버리고 키에프를 제압했다. 그후 적군은 반격을 개시하여 우크라이나로부터 폴란드군을 격퇴하고 와르쏘까지 진격해 갔다. 이로써 소련이 승리했다고 보였으나 돌연히 폴란드군은 츠하체프스키의 북진군과 남진군의 사이를 따고 들어와 적군의 통신망을 분단했다. 赤軍은 무너지고 말았다.

폴란드의 승리에는 같은 가톨릭나라의 동맹인 프랑스 군사고문단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 한다. 츠하체프스키와 스탈린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빴고 한편 군사위원인 트로츠키는 둘다를 비난하고 나섰다. 결국 레닌은 붉은 군대의 패배를 시인하여 1921년 3월 라트비아의 리가에서 휴전조약을 체결했다. 이는 대단한 역사적 사실이었다. 폴란드가 러시아에 이긴 것이었다. 1667년의 안도룟소보 휴전으로 폴란드에 대한 소련의 우위가 지속된 이후 2세기반만에 역전된 것이다. 폴란드의 승리는 영토의 확장을 가져다 주었다. 소련은 폴란드에 완전히 패배한 것이다.

이는 소련에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로마노프왕조이래 패권달성예의 길을 걸어온 러시아가 폴란드에게 그 야망을 짓밟히고 만 것이다. 또다시 기회를 보아 다시한번 폴란드와 싸워 짓 눌러 놓아야 한다고 다짐하게 마련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당연히 군대의 힘을 길러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소련으로서는 폴란드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방국인 독일과 손을 잡을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경제적으로도 러시아의 최대무역국은 독일이었다. 독일측으로서는 제1차대전의 패전으로 서구시장과 등을 지게되어 동방시장을 찾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었다. 그 뿐 아니라 막대한 배상금을 갚아야 할 형편이었다.

독일의 산업계는 서방파와 동방파가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우선 경공업계는 해외원료에 의존

해야 하기 때문에 서방과의 협조를 의식하여 소련과의 무역도 서방의 눈치를 보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와는 반대로 원료의 자급이 가능한 중공업계는(루르지방이나 슈레젠지방의 석탄이나 철) 소련과의 직접교역을 주장했다. 아 이러니칼하게도 서방과의 경공업계는 동독지방이었고 동방과의 중공업계는 서독지방이었다.

한편 소련에서는 사회주의 정권을 싫어하는 서방제국의 견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고립해 있었기 때문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달성을 위하여는 독일중공업계의 원조가 필요한 입장이었다. 따라서 소련과 독일의 접근은 자연적으로 깊어갈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군사적인 결속도 심화되어 갔다.

제1차대전 이후 독일은 연합군의 감시하에 들어갔다. 독일의 재무장은 극도로 제한되었고 말할 필요도 없이 군수물자의 생산은 엄금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가장 곤경에 빠진 것은 독일의 중공업계였다. 전쟁전에 국가주도하에 카르텔을 만들어 전쟁목적에 적합하게 재편성된 중공업계는 전쟁에 지고난 후 군수물자생산을 금지당하고서는 살아남을 방도가 없어진 것이다. 같은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은 독일군인들이었다.

이들 두 세력이 결속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기발한 아이디어가 짜맞추어지게 되었다. 그것은 연합군의 눈을 피하여 신흥국인 소련에서 조용히 군수물자를 생산하고 군대를 길러내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소련 영내에서 항공기, 잠수함, 탄약등을 제조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케니히스베르크 또는 레닌그라드로부터 비밀리에 해로를 이용하여 독일에 수송하는 것이다. 또한 독일 국내에서는 연합국의 감시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항공기나 전차를 사용하는 광역 군사훈련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훈련을 국토가 넓은 소련영역내에서 은밀히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소련에 대해서는 그 대가로서 독일의 군사기술을 공여하고 붉은 군대의 근대화를 도와준다. 이것이 양국간의 결속을 위한 아이디어의 내용이다.

이 내용을 소련에 제안했을때 소련은 즉각 찬성했다. 당시 소련과 폴란드의 전쟁이 진행중이었으므로 소련으로서는 군사기술을 모방 개량(에플레이트) 하기에는 절호의 기회이었다. 이리하여 1922년 이탈리아의 제노아로부터 남동쪽 30킬로미터 지점인 라파로에서 조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라파로조약이라 한다. 라파로조약이 체결되자 세계는 놀라와했다. 공산주의자인 소련과 군국주의자인 독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파로조약 자체는 순수한 외교조약으로서 표면적인 내용은 소련의 독일내 자산을 포기한다던가 소련의 독일에 대한 배상권을 포기한다는 등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독일이 폴란드의 공격을 받을 경우 붉은군대를 파견한다던가 독소간의 군사기술협력을 포함하고 있어 일종의 안전보장조약이기도 했다. 1926년의 독소 통상영사조약의 비밀협정중에는 독일군의 소련영내에서의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1927년 독일주재의 연합국감시위원회가 해산하자마자 독일은 소련의존을 중지하고 군비재확장을 공공연히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33년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서 부터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파멸의 길을 가게 된다.

독소조약의 효과는 소련측에서는 여러가지로 나타난다. 특히 항공기의 경우 그 효과가 현저하다. 소련의 유명한 항공기설계기술자 안드레츠포레프가 만든 ANT9기는 독일의 용카스52기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또한 제2차대전중에 사용된 독일공군의 멧사슈미트 BF110 폭격기도 츠포레프의 TU2기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다. 안드레츠포레프는 그 때문에 오해를 받아 스탈린에 의해 스파이죄로 체포되었다.

이와같이 소련은 1920년대로부터 30년대에 걸쳐 서방제국에 현저히 눈에 띄이게 「에플레이션 프로세스」를 완성했다. 되돌아 보면 이는 17세기의 모스크바 교외의 「독일 촌」의 노력이 여기에서 결실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